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96
NOV 12 2021

발간년월 2021년 11월 12일(통권 제196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역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시아 극동개발부, 탄소중립 위해 우리나라와 협력
- 러, 블라디보스토크 위성도시 건설에 한국기업 초청
- 러 극동북극개발부, 우리나라에 쿠릴열도 특혜 제안
- 러시아 수산청, 냉동 컨테이너 제조에 정부예산 지원
- NSR 결빙 속도 예년보다 빨라 선박 운항에 지장 초래
- 〈성과분석〉 크림반도 폐도시야 향만의 운영실적

주요 통계

- 2021년 9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주요 동향



러시아 극동개발부, 탄소중립 위해 우리나라와 협력

■ 외교부 제1차관과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 간 수소분야 협력 방안 논의^{a)}

- 최근 울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11.3.-5.) 참석차 방한했던 알렉세이 체쿤코프(Alexei Chekunkov)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이 최종건 우리 외교부 제1차관을 만나 극동 및 북극권에서의 한-러 경제통상 및 투자 협력 확대 전망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알림
- 체쿤코프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열 극동 프로젝트의 잠재적 파트너이자, 수소 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적 파트너”라며 한국 기업을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음을 밝힘
- 현재 러시아 정부는 극동 프로젝트를 통해 가스뿐만 아니라 태양열, 풍력, 조력 발전으로 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며, 특히 조력 발전 개발 계획 이행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
- 체쿤코프 장관은 이미 러시아 정부가 2020년 10월 ‘수소에너지 개발 이행 계획(로드맵)’을 승인했고, 수소 운송 및 소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 국가 지원 방안이 개발 중이라고 언급하는 등 적정 가격의 깨끗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 분야에 국가적 지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체쿤코프 장관은 러시아에서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실시될 첫 번째 지역인 사할린에 친환경 석탄, 친환경 LNG 생산은 물론 풍력 및 지열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강조하며, 천연가스를 이용한 저탄소 수소 생산 공장이 세워질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 개발 프로젝트’ 이행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함

■ 러시아 사할린에서 생산된 수소 가스,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 등을 논의

- 한-러 양국은 △극동지역과 아태지역 시장의 지리적 인접,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 등 극동지역에 자원적 기반 존재, △아시아권 경제의 수소 소비량 증가와 같은 이유로 수소에너지 분야 협력이 한-러 간 협력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한국으로의 러시아 수소 수입에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러시아가 수소 생산에 있어 높은 잠재력을 가졌음은 물론 동시에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소 활용에 대해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음
- 특히, 수소가 생산될 사할린과 수출지인 한국·일본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운송 구간이 짧고 수소 소비자 공급가에서 수소 운송 비용이 30~70% 정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사할린 수소의 경쟁력이 보다 높아짐

■ 수소 클러스터에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한 저탄소 수소 생산 공장 건설 예정

-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에서 생산된 수소는 운송,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사용될 예정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수출될 예정임
- 1차로 생산된 수소는 2025년에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연간 10만 톤까지 수소 공급량을 늘릴 계획임
- 사할린 수소 클러스터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아예 없는 녹색 및 청색 수소를 모두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 수소 소비자들에게 있어 주요 고려 요소가 되어줌
- 이 수소 프로젝트는 로사톰(Rosatom)의 자회사 루사톰 오버시즈(Rusatom Overseas)사(社)와 프랑스 에어리퀴드(Air Liquid) 사(社)가 주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로사톰(Rosatom), 에어리퀴드(Air Liquide)와 함께 연간 최대 3만 톤 규모의 수소 생산에 착수하는 한편, 2030년까지 연간 7만 톤의 수소를 추가로 생산하는 제2공장과 제3공장을 시운전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할린 지역의 수소 생산량은 연간 1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백가희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참고자료

- <https://tass.ru/obschestvo/12821263> (2021.11.5.검색)
- <https://neftegaz.ru/news/Alternative-energy/705629-v-seule-obsudili-postavki-sakhalinskogo-vodoroda-v-koreyu/> (2021.11.5.검색)

러, 블라디보스토크 위성도시 건설에 한국기업 초청

■ 체쿰코프 장관은 새로운 위성 도시 건설에 참여할 한국 기업 초청^{a)}

- 알렉세이 체쿰코프 (Alexei Chekunkov)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방한을 계기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 만남을 갖고, 블라디보스토크 위성 신도시 건설 참여를 위한 한국 기업 초청 의사를 밝힘
- 체쿰코프 장관은 현재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 인접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 참여하는 블라디보스토크 위성 신도시 프로젝트가 계획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신도시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팀들을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중이라고 언급함
- 블라디보스토크 위성도시 건설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국가와 사기업간 협력을 전제로 하는 민관 협력 신 매커니즘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기술사회 인프라 구축 또한 계획되어 있음
- 체쿰코프 장관은, 해안가에 위치한 1,000 헥타르 이상의 위성도시 건설 부지는 극동북극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공사의 기술적 파트너 및 투자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박기영 제2차관은 위성도시 조성사업 참여 가능성은 한국 측의 투자 및 토지 관련 기업을 인입시켜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언급함

■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30km 떨어진 위치에 위성 신도시 건설^{a)}

- 지난 9월 개최된 ‘제6차 동방경제포럼(EEF)’에서 극동북극개발부, 극동북극개발공사, 연해주정부, VEB.RF, ‘프로고로드(Progorod)’ 유한책임회사 간 블라디보스토크 위성도시 건설에 대한 협정이 체결됨
- 연해주 정부는 위성 신도시 건설을 위해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 인근 지역에 위치한 383 헥타르의 ‘스푸트니크(Sputnik)’와 430 헥타르의 ‘바이칼(Baikal)’ 부지를 선정함
- 블라디보스토크 위성도시에는 최신식 청정에너지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며, 위성도시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표는 거주인원 10만 명 이상임
- 신도시 건설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2개 구역 면적은 800헥타르 이상이며, 210만 평방미터 이상의 주거지역과 30만 평방미터의 상업지대가 건설될 예정임
- 스푸트니크 신도시 건설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와 아르쉴(Artyom)시에 거주하는 시민 100만 명 이상의 주문이 한 지역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이 같은 사업 추진에 따라 높은 수준의

도시 환경과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주택, 사회, 도로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 책정이 현재 진행 중임
- 스푸트니크 부지에는 4만 7,000명의 거주자를 위한 주택이, 바이칼 부지에는 5만 명의 입주자를 위한 주거 지역과 레크리에이션 등 관련 인프라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도시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있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백가희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참고자료

- a) <https://tass.ru/ekonomika/12829489> (2021.11.5. 검색)
- b) <https://rg.ru/2021/10/28/reg-dfo/riadom-s-vladivostokom-nashli-dve-ploshchadki-dlia-stroitelstva-novogo-goroda.html> (2021.11.5. 검색)

러 극동북극개발부, 우리나라에 쿠릴열도 특혜 제안

■ 쿠릴열도 개발사업 참여 권장 위해 한국 기업에 특별혜택 제공 의사^{a)}

- 알렉세이 체쿤코프(Alexei Chekunkov)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 방한 중에 가진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에 쿠릴열도 특별우대 방안을 제안함
- 체쿤코프 장관은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토지 및 운송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제공할 특별세제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며 쿠릴열도의 미래 사업 투자자를 위해 특혜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힘
- 이에 앞서 드미트리 그리고렌코(Dmitry Grigorenko) 러시아 부총리는 2023년 1월 쿠릴열도에 특별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관련 법안은 내년 상반기에 두마(러시아 연방 하원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임

■ 과거 한-러의 성공적인 경험을 쿠릴열도 개발 사업에서 재현 강조

- 체쿤코프 장관은 그간 한국과 러시아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해왔음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현될 수 있는 과거 양국 간 무역·경제 협력의 성공적인 경험을 강조함
- 연해주의 즈베즈다 조선소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현재 한국 기업은 극동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사업, 기술 공급, 장비 공급, 교육 서비스 등에 대거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였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백가희 실습생,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러시아 수산청, 냉동 컨테이너 제조에 정부예산 지원

그림. 냉동 컨테이너



자료: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russia-to-manufacture-reefers-to-meet-seafood-logistics-needs>

■ 극동지역 수출 수산물의 품질보장을 위해 냉동 컨테이너 제조 지원 계획 발표^{a)}

- 러시아 연방 수산청이 극동지역에서 서부지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냉동 컨테이너 제조를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 냉동 컨테이너 제조는 수산청 산하의 국영기업인 국가수산자원(Natsrybresurs)을 통해 관리될 계획이며, 생산은 첼랴빈스크에 기반을 두고 있는 CHTZ- Uraltrak社가 담당할 계획임
- 이 사업을 담당할 국가수산자원 회사는 “Penguin-6” 라는 냉동 컨테이너 모델을 제조하게 될 계획이며, 이는 온도가 섭씨 영하 25도에서 상온 25도까지 조절할 수 있고, 휴대 가능한 에너지 원으로 전력이 공급되는 방식임
- 러시아는 오랫동안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 수산물 물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했으며, 최근 철도운송 보조금 등의 정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 최근 러시아 부총리는 NSR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을 2022년부터 개시할 것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연중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러시아 수산기업에게 NSR은 극동지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을 유럽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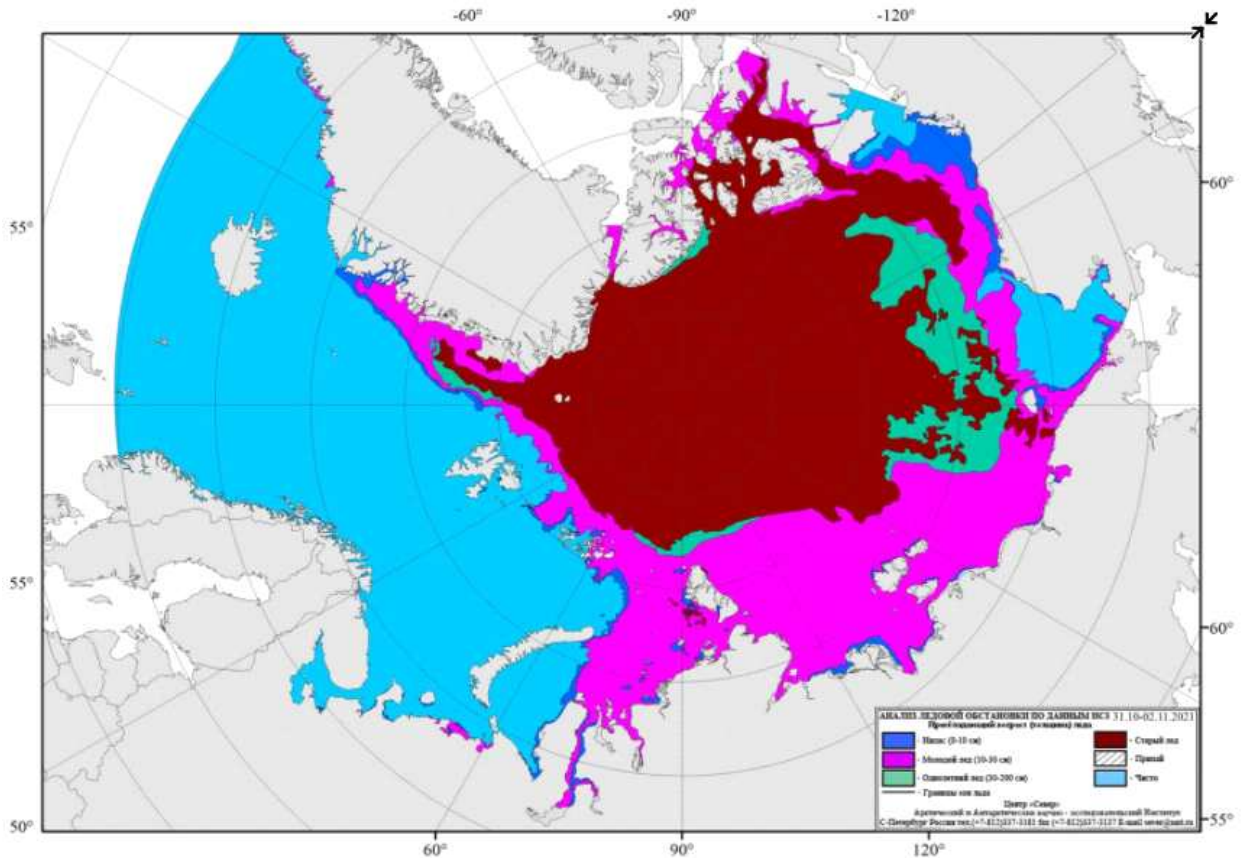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 a) <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russia-to-manufacture-reefers-to-meet-seafood-logistics-needs>(2021.11.11.검색)

NSR 결빙속도 예년보다 빨라 선박운항에 지장 초래

그림. 10월 31 ~ 11월 2일 NSR 결빙 상태



자료: <https://thebarentsobserver.com/en/arctic/2021/11/critical-situation-might-be-making-northern-sea-route>

■ NSR 결빙 속도가 예년보다 빨라져 다수의 선박이 운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a)}

- 보통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도 북극항로(NSR) 운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북극해 얼음이 예년보다 빨리 얼기 시작하면서 현재 20척 이상이 NSR 운항항로에 갇혀버리거나 점점 두꺼워지는 얼음을 힘들게 뚫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랍테프해와 동시베리아해는 15미터 이상 두께의 얼음으로 덮여있으며, 동시베리아해역에는 최대 70cm 두께에 이르는 일년빙과 2미터 두께의 다년빙도 관측됐음
- NSR 동부해역을 지나고 있는 선박으로는 유조선 2척과 캐나다 북극 광산에서 중국으로 철광석을 운송하는 선박 3척과 무르만스크로부터 철광석을 운송하는 2척을 포함한 상당수의 벌크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부 선박은 결빙이 심한 지역을 우회하기 위해 운항로를 변경했으며, 이에 따라 Arc4 등급을 가지고 있는 UHL 선박의 경우 스케줄이 최소 2주 지연됐음

- 선박 4척은 페베크항에 아직도 정박해 있으며, 출항시 운항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북극LNG-2 사업 관련 화물을 싣고 기반 반도를 향하고 있던 Poolgracht호는 쇄빙선 지원을 기다려야 했으며, 현재 Taymyr호 원자력 추진 쇄빙선의 도움을 받고 카라해를 지나고 있음
- NSR를 운항하고 있는 여러 선박은 쇄빙선 지원 없이 두꺼운 결빙해역을 운항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러시아 해운규제를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며,
- 최소 1척은 허가 받은 NSR 운항 가능한 기간이 먼저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유조선 Andrei Pervozvanny호의 운항허가 기간은 11월 9일까지임
- 최악의 경우, 일부 선박은 해당 지역에서 수 주에서 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음
- 2017년 겨울에도 운항해 나가기에는 얼음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고, 로사토폴랏의 핵추진 쇄빙선은 NSR 다른 해역에 투입되어 선박 3척이 겨울철 기간 내내 페베크를 벗어나지 못한 사례도 있음
- 현재 랍테브해와 동시베리아해에 핵추진 쇄빙선 1척만 운항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러시아가 건조한 가장 강력하고, 최신식인 Arktika호 쇄빙선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항에 정박해 있으며, Yamal호와 50 Let Pobedy호도 무르만스크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NSR 겨울철 결빙사태, 미래 수에즈 운하 대체하려는 러시아 NSR 계획에 찬물

- 러시아 기상청에 따르면 러시아 10월 기온은 평균보다 온화했으며, 러시아 북극 연안의 주요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섭씨 2~4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에서의 강풍으로 인해 어려운 NSR 운항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임. 북극항로국(NSRA)에 따르면, 11월 첫 주 최대 풍속 30m/s의 강풍을 동반한 폭풍이 지나감
- 이와 같이 복잡한 결빙조건은 NSR를 미래 수에즈 운하의 대체항로로 선전하는 러시아 당국을 당혹시키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23년~24년 겨울까지 연중 상업운항을 개시하고, 2030년까지 NSR 물동량을 1억 5,000만 톤까지 달성한다는 목표임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참고자료

- a) <https://thebarentsobserver.com/en/arctic/2021/11/critical-situation-might-be-making-northern-sea-route> (2021.11.11. 검색)

〈성과분석〉 크림반도의 페오도시야 항만 운영실적

■ 러시아 크림반도 페오도시야 항만의 시스템 구축 등으로 상반기 물동량 증가^{*)}

- 지난 7년간 크림 공화국은 크림 대교, 타브리다(Tavrida)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운송시스템이 발달하였으나 국제 제재와 미재건 된 2, 3번 부두로 인해 페오도시야 항만의 화물 물동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2021년 상반기, 총 화물 거래량은 작년 동기 대비 105.2만 톤으로 75.33% 증가했으며, 그 중 주요 부분을 차지한 제품은 석유제품으로 거래량이 62.5만 달러였으며 2020년 티탄 철광(53.8만 톤)은 밀가루로 대체됨
- 2021년 페오도시야 항만의 예상 물동량은 최대 31만 톤이나 국제 제재, 카보타지(Cabotage) 원칙, 제 2, 3번 항만 재건 완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2021년 상반기 선박 항차 수는 작년 대비 약 2배로 17척에서 32척까지 증가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여객수송량은 약 3만 6,000명에서 약 1만명으로 3배 감소했으나 2021년 상반기 5,655명으로 소폭 증가함
- 선박 교통 관리시스템(VTS)과 항만국 통제 감독관(PSCI)은 페오도시야 항구의 안전과 인명보호를 위해 "2020년까지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의 사회 및 경제 발전" 목표 아래 최신 장비 도입, 선박 교통 관리 시스템(VTS)과 글로벌 해양 조난 및 안전 시스템(GMDSS) 센터를 구축함
- 선박 교통 관리시스템(VTS)에 따르면 안전을 위해 소형, 스포츠 항해 및 레저용 선박은 항구 수역 내 풍속 14m/s 이상, 가시거리 555.6m 이하, 370.4m 이하의 닻줄 수역 내 정박지 접근, 수영 등은 금지되며 무선통신 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항해도 금지하며, 부유하거나 정지된 내비게이션 장비에 정박, 교차로 이동, 이동 중인 선박에 근접한 운행은 금지됨
- 항구의 도선 사용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통과 선박, 소형선박, 레저용 선박, 함대, 총 용량 500 m³ 미만 선박, 악천후로 인해 항구에 머무는 선박은 강제적으로 도선을 사용하는 것에서 면제될 수 있음
- 2020년 1월~2021년 7월까지 항만관리국은 27척의 선박을 검사했으며, 선박별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음
 -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74/78 및 선박 생존성 기술 지침 - 11척(41%); 국제만재흡수선협약(LL) 66 - 4척(14%); 2013 구명법 - 4척(14%); 2010 소방

장비법 - 1척(4%); 2006 해사 노동 협약 - 3척 (11%); 러시아 강 등록 규칙 - 1척 (4%); 항법 서비스 매뉴얼(NShSM-86) - 1척(4%); 내륙 수로 운송 선박(RTE IWT)의 기술 운영 매뉴얼 - 1척(4%); 선박 위생 증명서 - 1척(4%)이 도출되었음

- 페오도시야 항구 책임자는 흑해 항구 소속이며 주 정부에 의해 항구 경계 내의 모든 선박의 안전과 러시아 법률 및 국제 조약의 준수 통제 검사가 시행되고 항만, 세관, 국경, 이민, 위생 검역, 수의학, 환경 및 기타 유형의 국가 통제의 구현에 대해 공인 연방 행정 당국과 상호 작용함
- 상호 작용 목록은 러시아 연방 법 준수 아래 운영 조직의 기름유출방지 및 제거, 긴급상황 방지 위원회에 항만 책임자 참여가 포함되어 있음(2020년, 페오도시야 항구의 석유 및 석유제품 유출 관련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음)

강하람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pdud027@hufs.ac.kr)



주요 통계



표. 2021년 9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2.38 (+2.7%)	6.19 (-2.7%)	18.57	+0.8%
북극해	2.89 (+2.0%)	5.02(-2.9%)	7.91	-1.4%
발트해	10.2 (+7.9%)	10.38 (-1.4%)	20.58	+2.8%
아조프-흑해	10.00 (+6.6%)	11.14(+0.3%)	21.14	+3.0%
카스피해	0.2 (-30.8%)	0.34 (+0.4%)	0.54	-12.9%
합계	35.67(+4.8%)	33.07(-1.3%)	68.74	+1.7%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김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18402/>(2021.10.15.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9764/> (2021.10.15. 검색)

표.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347,673.4	46,802.8	885.6	1,215.6	348,559.0	48,018.3
25-27	광물 제품	665,439.4	46,277.0	22,875.9	43,409.9	688,315.3	89,686.9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497,127.2	45,861.1	382.8	0.92	497,510.0	45,861.1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4,519.8	66,195.2	1,130.3	377.0	5,650.1	66,572.3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14.2	1,868.8	14.4	76.2	28.6	1,945.0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4,796.5	6,586.7	232.5	145.9	95,029.0	6,732.6
50-67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334.6	63,643.0	61.3	4,116.4	395.9	67,759.4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18,321.4	59,017.6	920.3	3,077.4	19,241.7	62,094.9
84-90	기계류	10,851.8	589,084.6	1,591.0	2,267.2	12,442.8	591,351.8
68-71, 91-97	기타	308,070.6	55,283.7	40,659.5	312.5	348,730.1	55,596.2
	합계	1,450,021.6	934,759.4	68,370.8	54,998.0	1,518,392.4	989,757.4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9.15. 검색)

표. 2021년 8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266	320.9	-	-	-	-	-	-	266.0	320.9	-	-
0303	냉동수산물	105,112	153,751.5	0	0.0	64	81.9	-	-	105,175.8	153,833.4	0	0.0
03031	연어	15,941	52,727.6	-	-	20	35.5	-	-	15,960.9	52,763.2	-	-
030331	광어	374	1,986.0	-	-	-	-	-	-	373.5	1,986.0	-	-
030332	가자미	924	851.0	-	-	-	-	-	-	923.8	851.0	-	-
030339	기타 넙치류	1,523	1,296.9	-	-	-	-	-	-	1,523.0	1,296.9	-	-
030351	청어	29,056	15,826.8	-	-	2	1.8	-	-	29,057.7	15,828.6	-	-
030363	대구	3,202	9,177.8	-	-	-	-	-	-	3,201.7	9,177.8	-	-
0303670000	명태	34,248	33,968.2	-	-	39	40.3	-	-	34,287.2	34,008.5	-	-
0303893	농어	2	5.9	-	-	-	-	-	-	1.6	5.9	-	-
030391	알류	1,131	119,388.0	-	-	-	-	-	-	1,131.2	27,226.5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260	557.3	-	-	-	-	-	-	260.3	557.3	-	-
0304	생선 필레	7,324	24,097.1	0	0.0	30	65.3	-	-	7,354.3	24,162.4	0	0.0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11	11.3	0	0.0	0	0.0	-	-	11.2	11.3	0	0.0
0306	갑각류	4,552	134,541.8	0	0.0	-	0.0	-	-	4,552.4	134,541.8	0	0.0
030614, 030633, 030693	게	4,161	129,073.7	-	-	-	0.0	-	-	4,161.3	129,073.7	-	-
0307	조개류	2,152	8,334.7	-	-	0	1.6	-	-	2,152.3	8,336.3	-	-
03072	가리비	757	1,317.6	-	-	-	-	-	-	756.6	1,317.6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883	2,453.8	0	0.0	0	1.6	-	-	883.6	2,455.3	0	0.0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0	0.0	-	-	0	0.0	-	-	0.0	0.0	-	-
03081	해삼	0	0.0	-	-	0	0.0	-	-	0.0	0.0	-	-
03082	성게	0	0.0	-	-	-	-	-	-	0.0	0.0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10.15. 검색)